



▲ 왼쪽부터 안수진 선생님, 손향숙 선생님, 이시연 선생님, 황정아 선생님

## 대학영어 초빙교수

현재 기초교육원에서 개설하는 영어 교과목은 기초영어, 대학영어, 고급영어로 분화되어 있다. 이 중 영어 교과목의 중심이 되는 대학영어는 학술영어와 일상영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교양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한다는 취지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열린지성>에서는 대학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네 분의 초빙교수님을 만나보았다.

제일 먼저 대학영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듣기, 말하기, 글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글쓰기 활동의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학영어 수업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한 문제는 없는지 여쭙어 보자, 시간제약 문제와 고급영어의 수준차이 문제를 거론하셨다. 해결책으로 ‘대학영어를 6학점으로 늘릴 것’, ‘고급영어처럼 세분화시킬 것’, ‘대학영어와 고급영어 중간 레벨의 수업을 개설한 것’을 제시하셨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대학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다. 우선 교양수업에 대한 편견을 버릴 것을 부탁하셨다. 수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과제를 내는 경우, 불평하지 말고 과제를 자기 계발의 일부로 받아들여 성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수업시간에 자신 있게 말할 것을 부탁하셨다. 영어를 잘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 있게 수업이라는 ‘기회’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실제 선생님들은 말하기 스킬보다 학생의 성실한 태도 및 내용의 진정성을 더 본다고 말씀하셨다.

● 글 : 황향주 / 사진 : 이수정